

물가 상승, 브레이크가 없다

광주 기름값 l 당 1657.42원... 최근 5주간 40원 급등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1.8% ↑...채소·과일 줄줄이 올라

선풍기 열기가 무섭다.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기름 값이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처럼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주보다 l 당 10.6원이 오른 1657.42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역시 l 당 9.41원 오른 1658.05원을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2014년 12월 둘째주

1673.22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전남은 2014년 12월 셋째 주 1665.64원을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무려 13주 연속 오른 것으로, 특히 최근 5주 동안에만 40원이나 급등한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광주는 전주보다 10.94원이나 오른 1447.99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전남은 8.74원 오른 1450.6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11월 이란 제재를 앞두고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며 "국제유가가 7주 연속 상승

세를 유지함에 따라 국내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9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 상승했다. 전남은 2.0% 상승한 105.78을 기록했다.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광주와 전남 각각 2.2%씩 상승했으며, 이시기후로 가격이 오른 농산물 탓에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6.3%, 7.0%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달 접어들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줄줄이 오르는 물가에 지역민들의 시름도 한동안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이달 토마토와 오이, 풋고추 등 주요 과채류와 사과와 배, 포도, 감 등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반 토마토는 10kg 3만5000~3만9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값이 두배가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추형 방울토마토도 3kg당 1만6000~1만9000원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보다 4000~7000원 비싸질 것으로 관측됐다.

백다다기오이(100개당)는 1000~5000원 비싼 3만6000~4만원, 일반 풋고추(10kg)는 2000~6000원 오른 2만9000~3만3000원으로, 과일 중에서는 배(15kg)가 4000~7000원이나 오른 2만9000~3만2000원이 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스카프 하나면 가을 멋쟁이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2층 '루이 까뜨즈 스카프' 매장에서는 이번 가을 체크와 체인 등 북고풍 스타일의 스카프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전자, 지역사회 공헌활동 활발

전국기능대회 12년째 후원...광주세계수영대회 파트너 참여

삼성전자가 10년 넘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나주공고와 여수엑스포 등에서 열리는 '제 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삼성전자가 우수기능인력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로 12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고용노동부와 '기능장려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부터 선수단 후원을 지원하고 있다. 50개 직종에서 17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올해의 경우 여수엑스포에 별도의 홍보관을 마련하고 대회를 지원하면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 5명을 선발해 '삼성 후원상'을 준다.

앞서, 삼성전자는 광주에서 열리는 '2015 광주세계수영대회'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로 참여기로 결정했었다.

당시 광주시는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을 둔 점을 감안,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하나로 대회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후 하계 U대회 때 선수촌과 경기장 등에 필요한 100억 원이 넘는 TV, 냉장고 등을 후원했다.

삼성전자는 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국제수영연맹(FINA)의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시가 수영대회 지원을 요청하면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결제 편하고 친절한 남광주시장으로 오세요" 서비스혁신 결의대회



광주의 수산물 대표시장인 남광주시장은 지난 4일 오후 남광주시장 주시장 광장 일대에서 임택 동구청장·손승기 상인회장·장복수 남광주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육성사업단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 서비스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7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인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남광주시장의 변화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상인들은 이날 ▲결제 편안한 시장 ▲믿음을 주는 시장 ▲친절하고 정결한 시장을 3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내걸고 '지역 문화와 소통하는 광주 대표 명소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남광주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육성사업단 제공>

광주·전남 주택 20채 이상 임대사업자 652명

광주 414명 전국 네번째...3채이상 광주 2278명·전남 1531명

광주·전남에만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6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채 이상을 소유한 광주의 임대사업자는 414명으로 서울, 경기도, 부산 다음으로 많았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전남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414명, 전남 238명 등 652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8691명)의 7.5%였다.

집을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2251명, 경기 2062명, 부산 150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다주택자'라 불리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6.6%인 9만9999명이었다.

서울이 3만4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2만3688명으로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2278명, 전남은 1531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임대사업자 중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비율로 보면 제주도가 41.2%(3231명 중 1330명)로 가장 높았고 전북 36.2%(5075명 중 1838명), 충남 35.3%(8647명 중 3051명), 광주 31.6%(7216명 중 2278명), 부산 31.5%(2만2825명 중 7194명) 순이었다.

민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수출 중소기업 통상·무역정책 설명회

내달 9일 광주상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9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설명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지역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광주를 비롯, 전국 주요지역을 방문해 통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4년 만으로, 정부는 한미FTA를 비롯한 최근 FTA 추진 동향,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과 계획, FTA 활용 촉진정책, FTA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무역조

정지원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도복권 (제82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1 12 29 33 44	1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06,500,375	15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65,570,673	46
3 5개 숫자일치	1,427,474	2,113
4 4개 숫자일치	50,000	106,164
5 3개 숫자일치	5,000	1,761,371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